

“초심(初心), 새로운 도전”

글 · 사진 서울아산병원 홍보팀



6월 2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서울아산병원 합창부가 첫 곡인 '그리움'을 부르는 모습.

1989년 6월 23일 ‘환자중심병원’을 선언하며 문을 연 서울아산병원이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30년 만에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6만여 명에 달하는 병원으로 성장한 서울아산병원은 아산재단이 정읍, 보성, 보령, 영덕아산병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세운 병원이다. 아산재단은 현대적인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종합병원을 세우는 의료사업을 벌였는데 아산재단 산하 지역병원의 모(母)병원 역할을 하고, 국내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이다(지금은 금강, 홍천, 강릉아산병원을 더해 아산재단 산하에 모두 8개 병원이 있다).

주요 암과 심장질환, 중증질환 치료에서 세계적인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아산병원은 국내를 넘어 해외 중증환자와 의학자들이 찾아오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2,704병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12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 6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1위', 3년 연속 '한국콜센터품질지수 1위'에 선정되는 등 고객 신뢰도와 서비스에서도 최고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열린 다양한 행사를 소개한다.

‘아산인’의 열정 담긴 음악회

개원 30주년 기념 음악회는 지난 6월 21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잠실의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됐다. 음악회는 지난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위로 공연을 해온 서울아산병원 합창부와 올해 2월 창단해 이날 데뷔 무대를 가진 남성 교수 중창단, 음악 봉사단체인 더글림 앙상블의 무대로 꾸며졌다.

음악회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이흥구 아산재단 이사, 이승규 아산의료원장,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직원과 직원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님 그린 이 마음이야 그릴수록 깊으이다...’

합창부는 잔잔한 선율의 ‘그리움’으로 음악회의 문을 열었다. 무대 위 화면에 가사와 함께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나오자 객석은 숙연해졌고 노래의 울림은 더욱 커졌다. 이후 ‘서시’ ‘감사해’ ‘도레미송’ ‘똥보새’ ‘우리’ 등을 부른 합창부는 노래 사이사이에 귀여운 안무를 더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남성 교수 중창단은 멋진 화음이 어우러진 ‘시간에 기대어’ ‘나는 문제 없어’ 두 곡으로 훌륭한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이 큰 박수와 함께 앙코르를 연호하게 만들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등으로 구성된 더글림 앙상블은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환자들과 공감해온 단체답게 ‘시네마 천국’ ‘사운드 오브 뮤직’ 등 편안하고 귀에 익숙한 곡을 선곡해 연주하며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공연이 끝난 후 정몽준 이사장은 “좋은 음악회를 준비해주서



음악회가 끝난 후 열린 리셉션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사진들을 보고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가는 세월’을 들으니 아버님과 같이 있는 느낌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병원, 존경받는 병원이 됐다. 앞으로의 30년은 더욱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세계에서도 제일 가는 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규 의료원장은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준 직원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왔다. 지난 30년간 병원 발전을 위해 수고한 아산 가족 모두가 자랑스롭다. 우리는 앞선 의술, 더 큰 환자 사랑을 위해 항상 도전해왔고 그것이 서울아산병원의 초심(初心)이다. 늘 초심을 간직하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도 병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병원을 위해 가장 애쓴 건 우



음악회에서는 올해 2월 창단한 남성 교수 중창단이 처음으로 공식 공연을 선보였다.



6월 21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 이상도 병원장이 기념사를 하는 모습.

리 직원들이다. 오늘 음악회에서든 전문가가 아닌데도 멋진 연주를 해낸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병원의 열정 문화가 스며들어 있음을 느꼈다. 직원 모두가 함께 개원 30주년을 축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연이 끝난 뒤 콘서트홀 로비 3곳에 펼쳐진 리셉션장은 정갈하게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음악회의 감동을 나누는 참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미래 경쟁력’ 강조한 기념식

개원 30주년 기념식은 음악회가 열린 날과 같은 6월 21일 오전 8시, 서울아산병원의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식에 앞서 7시 40분부터 대강당 로비에 마련된 다과회장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인사하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병원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3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됐다. ‘나는 서른 살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병원이 처음 문을 연 1989년, 국내 최대 단일 병원으로 우뚝 선 1994년, 국내 최초로 암 통합진료시스템을 구축한 2006년, 신관을 열어 2,700병상의 초대형 병원으로 성장한 2008년,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인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을 개소한 2011년, 과거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의학을 가르쳤던 미국 미네소타대학병원과 공동연구 협약을 맺은 2015년 등 지난 30년의 역사와 차세대 의료정보 고도화 사업(AMIS 3.0), 새로운 병동 건립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도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환자만 생각한 하루하루가 쌓여 서울아산병원의 소중한 30년을 일궈냈다. 41개 센터와 원스톱 통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 우선의 신념이 전해준 에너지와 성취는 우리의 30년 역사에서 수많은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이 순간이 자랑스럽다. 이 보람과 기쁨을 (19)89사번부터 (20)19사번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AMIS 3.0과 음압격리병동인 I동, 특수 병상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해줄 D동을 소개하고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어진 축하 영상에서는 이정신 전 병원장(명예교수), 피수영 전 진료부원장(명예교수), 아산원우회의 정택모 회장과 채현숙 부회장, 박인숙·김기용 명예교수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정신 전 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정주영 설립자의 숭고한 이념과 모든 임직원의 부단한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의료계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왔다. 새로운 30년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발전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수영 전 진료부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서울아산병원은 양적·질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의료진을 비롯해서 병원 모든 부서 직원이 힘쓴 결과다. 앞으로도 지난 30년의 소중한 자산을 밑거름으로 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30년 근속 기념메달 수여, 30주년 기념케이크 커팅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30년 근속 직원 157명을 대표해 산부인과 김영탁 교수, 신순자 암병원간호1팀장, 진단검사의학팀 박현준 부장, 법무팀 오희섭 부장이 기념메달을 받았다. 30년 근속 직원은 의사직 24명, 간호직 27명, 약무직 1명, 보건직 45명, 사무직 33명, 기술직 8명, 기능직 19명이었다.

기념케이크 커팅에는 이승규 의료원장, 이상도 병원장, 이정신·박성욱 전 병원장, 김연희 전 간호부원장, 정택모 아산원우회장, 1989년 6월 21일과 22일 생일을 맞은 심장병원간호팀 이명숙 주임, 내과간호2팀 조은 주임이 참여했다.

간호부의 역사 돌아본 ‘아산간호사의 날’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30주년과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아산간호사의 날 행사는 6월 17일과 18일 동관 대강당과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0년간 간호부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에서는 간호부 30주년 영상 감상, 서울아산병원 간호의 과거 30년과 미래 30년을 주제로 한 1989년 입사자와 1989년생



아산간호사의 날 행사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간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발간된 서울아산병원 30년사 <초심, 새로운 도전>.



직원의 발표, 간호사와 배우자 4쌍의 토크쇼, 신조어 실력 평가, 수술간호팀 직원들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정영선 간호부원장은 “아산의 미래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간호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이 신바람 나고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강당 로비에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했다. 간호사들은 ‘힐링관’에서 헤어 및 네일 케어를 즐겼고, ‘포토존’에서는 소품을 이용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희망나무’에는 간호부 30주년을 축하하고 미래에 바라는 메시지를 부착했고, 기부를 위한 ‘폴리카펫’에서는 애장품을 사고팔았다. ‘역사 전시관’에서는 간호부의 주요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행사에 참여한 수술간호팀 김영승 대리는 “항상 일에 집중하느라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우리 간호부의 미래가 더 따뜻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과간호1팀 박선아 주임은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영광이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정말 잘 준비돼 있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다. 이런 행사를 통해 더 끈끈하게 뭉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30년사 발간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 직원들의 모습을 담은 서울아산병원 30년사 <초심, 새로운 도전>도 발간됐다.

<초심, 새로운 도전>은 양장 제본으로 총 344쪽이다. 설립 이

념, 개원 초창기 병원과 직원들의 활동 모습,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모습, 직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우리의 정신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다.

주제별로 보면 ▲새로운 병원을 만든다 ▲병원의 확장 ▲의료 성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조직 문화 ▲미래의 의료인 양성 ▲연구중심병원 ▲세계 속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의 미래로 나뉘어 있다.

<초심, 새로운 도전>에서는 개원 준비 과정 및 동관과 신관의 건립, 수해와 메르스 극복 등의 역사를 직접 겪은 직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다양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사진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환자 스토리, 해외 의료진 연수기, 직원 연수기 등을 일러스트와 함께 실고 있다.

뒷부분에는 서울아산병원의 30년 역사를 시대 순으로 정리한 연혁이 첨부됐고, 직원들의 다양한 모습이 사진으로 펼쳐지는 ‘사진으로 보는 서울아산병원’, 각종 통계와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자료로 보는 서울아산병원’이 구성돼 있다.

이상도 병원장은 “지금의 서울아산병원은 선배님들의 헌신과 양보 그리고 묵묵히 소임을 다한 직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이라면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30년사의 발간 취지를 전했다.

<초심, 새로운 도전>은 서울아산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에코백에 담아 전 직원에게 배포됐다. 이 외에도 개원 30주년 기념을 기념해 ‘아산 아카데미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 등이 펼쳐졌다. 📖